

SKT, 스타트업과 손잡고

장애인 권익 향상에 앞장

**- SKT, AI 기술로 장애인 생활 혁신하는 스타트업 지원하며 ESG 경영 강화**

**- AI 기반 시각장애인용 점자 변환 소프트웨어, 6개월 제작기간 하루로 단축**

**- 스마트 점자학습 시스템, AI 모바일 쇼핑 앱으로 시각장애인 일상생활 혁신**

**- 청각장애인 운행 모빌리티 ’고요한M’, 교통약자 전용 ‘착한셔틀’도 사업 확대**

|  |
| --- |
| **엠바고: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

**[2021. 4. 20] 보도참고자료**

**‘시각장애인이 AI 기술로 독서와 쇼핑을 즐기고, 중증 장애인도 전용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해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 [www.sktelecom.com](http://www.sktelecom.com))이 혁신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제공중인 장애인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비스들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주목받고 있다.

SKT는 지난 2019년부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이 사회적가치 실현 및 비즈니스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팩트업스(IMPACTUP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IMPACTUPS (=(social) Impact + Startups) : ICT를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스타트업 활성화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 참여기업들을 지칭

이 프로그램들 중 2019년 ‘임팩트업스’ 1기는 시각장애인 스마트폰 접근성 강화 솔루션을 개발한 ‘에이티랩’을 지원했고, 2기는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ICT 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기업과 협업하는 등 장애인 관련 기업과의 협업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SKT는 ‘임팩트업스’ 참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인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비즈니스 협력 활동을 제공하고, 투자유치 활로 마련 등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 이동을 돕는 ‘착한셔틀 모빌리티’ 등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자체 및 국내 기업들과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변환 알고리즘, AI 점자학습 솔루션, AI 모바일 쇼핑 선보여**

SKT ‘임팩트업스’ 2기 참여 기업 **센시(대표 서인식)**는 인공지능 기반 시각장애인용 점자 변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다. 서적에 있는 글자는 물론 이미지와 복잡한 수식도 점자로 전환해주는 알고리즘을 구현, 제작에 6개월이 걸리는 300페이지 분량 점자책을 하루만에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제작 효율이 증가하며 점자서적 판매가격도 기존 150달러에서 10달러 내외로 획기적으로 낮췄다.

센시는 미국, 스페인 등 글로벌 점자 출판물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 1분기 약 35만 달러(약 40억원) 수주 성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1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SKT는 센시가 그 동안 부족했던 점자 교육교재나 전공서적, 전문서적, 참고서 등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점자학습기 ‘탭틸로’ 개발사인 **오파테크(대표 이경황)**는 지난해부터 ‘임팩트업스’에 참여, AI 스피커 ‘누구’에 기반한 ‘스마트 점자학습 시스템’을 전국의 맹학교와 복지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오파테크는 기존 전문 강사가 구두 설명과 촉각을 이용해 1:1로 점자를 교육하던 방식을 AI 스피커 기반의 일대다(一對多) 교육으로 혁신했고, 인공지능이 학습자 수준에 맞춘 반복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각장애인이 ‘스마트 점자학습 시스템’을 활용하면 점자학습기(탭틸로) 블록위에 점자를 입력하고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도 AI스피커로부터 단어를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시각장애인이 궁금해하는 단어를 얘기하면, AI스피커가 이를 인식해 점자학습기로 표현해주는 양방향 학습이 가능하다.

**와들(대표 박지혁)**은 시각장애인용 AI기반 모바일 쇼핑 앱 ‘소리마켓’을 개발, 인공지능으로 누구나 장벽 없이 쇼핑 정보에 접근하고 편리하게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소리마켓’은 터치스크린 기반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소셜커머스 및 입점사와 제휴를 맺고 플랫폼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쇼핑 정보를 음성으로 전달한다. 이때, 인공지능 엔진을 기반으로 검색부터 결제까지 모든 과정을 시각장애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시각장애인의 자립적인 쇼핑 생활을 지원할 수 있다.

**■ 청각장애인 운행 모빌리티 ’고요한M’, 교통약자 전용 ‘착한셔틀’도 사업 확대**

‘임팩트업스’ 2기 참여기업 **코액터스(대표 송민표)**는 청각 장애인 기사들의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차량 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고요한 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 직고용, 전액 월급제를 통해 기사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일하면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SK텔레콤은 청각이 약한 기사가 택시 호출 신호를 잘 인지할 수 있도록 깜빡이 알림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티맵 택시 앱에 구현했고, 청각장애인 전용 ADAS(첨단운전자 지원 시스템)와 T케어 스마트워치를 '고요한M' 전 차량에 탑재했다.

이러한 양사 협력을 통해 '고요한M'은 지금까지 총 86명의 청각장애인 기사를 배출했고, 운행 건수도17만 건을 넘어섰다. 해외 수상 소식도 이어졌다. 코액터스는 20년 ‘MWC 글로모 어워드’에서 '접근성과 포용성을 위한 모바일 활용’ 부문 최우수상을 SK텔레콤과 공동 수상했다.

한편, SKT는 열악한 출퇴근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착한셔틀 모빌리티’의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SKT와 **모두의셔틀(대표 장지환)**이 함께 서비스하는 ‘착한셔틀 모빌리티’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출퇴근을 돕기 위해 자택 앞에서 근무지까지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로 셔틀버스를 지원한다.

모두의셔틀은 ‘착한셔틀 모빌리티’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고객들이 실시간 예약, 차량 위치 및 잔여 좌석 확인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실제 차량 운행을 맡았다.

SKT와 티맵모빌리티는 ‘착한셔틀 모빌리티’에 T맵 데이터 분석 기반 최적 안전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향후 모두의셔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SK그룹이 설립한 사회적기업 행복커넥트와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 셔틀을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일반 기업들도 기부협약 형태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모델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여지영 SK텔레콤 오픈콜라보담당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ICT 서비스 제공 스타트업 기업들을 꾸준히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및 장애인 신규 고용 창출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
| --- |
| **※ 사진설명**(사진1) ICT를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스타트업 활성화 프로그램 ‘임팩트업스’ 참여 기업 대표자들(사진 2) 센시는 AI 기반 시각장애인용 점자 변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 서적에 있는 글자는 물론 이미지와 복잡한 수식도 점자로 전환해주는 알고리즘을 구현했다.(사진3~4) 오파테크는 점자학습기 ‘탭틸로’와 AI 스피커 ‘누구’에 기반한 ‘스마트 점자학습 시스템’을 서비스하고 있다.(사진5~6) SKT와 모두의셔틀은 열악한 출퇴근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착한셔틀 모빌리티’를 서비스하고 있다. |

**▶ 관련 문의: PR실 전략PR팀 우현섭 매니저(02-6100-3854)**

**<끝>**